**우빠다나 빠리왓따경**

(Upādāna parivatta suttaṃ- Holding and Turning in a Circle-집착된 것의 계열, 상윳따니까야 S21.2.1.4,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 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이 있다. 다섯가지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 집착된 물질의 다발, 집착된 감수의 다발, 집착된 지각의 다발, 집착된 형성의 다발, 집착된 의식의 다발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의 네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했을 동안에,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천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행자와 성직자와 하늘사람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확신하지 못했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나 이 다섯가지 집착된 존재의 다발의 네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아는 한, 수행승들이여, 나는 신과 악마와 범천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수행자와 성직자와 하늘사람과 인간들의 세계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확신했다.

어떻게 네가지 계열이 존재하는가? 나는 물질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안다. 나는 감수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안다. 나는 지각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안다. 나는 형성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안다. 나는 의식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안다.

수행승들이여,

물질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네가지 위대한 존재와 네가지에 의해생긴 물질을 물질이라고 부른다. 자양분이 생겨나므로 물질이 생겨나고 자양분이 소멸하므로 물질이 소멸한다. 물질의 소멸로 가는 길은 이와 같은 여덟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그것은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물질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면 잘 수행을 닦는 것이다. 잘 수행을 닦는 자들은 가르침과 계율에 발판을 마련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물질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집착없이 해탈하면 잘 해탈한 것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홀로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유전하여 시설될 것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감수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가지 감수의 무리, 즉 시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청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후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미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촉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정신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가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감수라고 부른다. 접촉이 생겨남으로써 감수가 생겨나고 접촉이 소멸함으로써 감수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여덟가지 거룩한 길만이 감수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감수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감수를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면 잘 수행을 닦는 것이다. 잘 수행을 닦는 자들은 가르침과 계율에 발판을 마련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감수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감수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감수를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집착없이 해탈하면 잘 해탈한 것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홀로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유전하여 시설될 것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지각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가지 지각의 무리, 즉 형상에 대한 지각, 소리에 대한 지각, 냄새에 대한 지각, 맛에 대한 지각, 감촉에 대한 지각, 사물에 대한 지각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접촉이 생겨나므로 지각이 생겨나고 접촉이 사라지므로 지각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여덟가지 거룩한 길만이 지각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지각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면 잘 수행을 닦는 것이다. 잘 수행을 닦는 자들은 가르침과 계율에 발판을 마련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지각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지각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집착없이 해탈하면 잘 해탈한 것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홀로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유전하여 시설될 것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형성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가지 의도의 무리, 즉 형상에 대한 의도, 소리에 대한 의도, 냄새에 대한 의도, 맛에 대한 의도, 감촉에 대한 의도, 사물에 대한 의도가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형성이라고 부른다. 접촉이 생겨나므로 형성이 생겨나고 접촉이 사라지므로 형성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여덟가지 거룩한 길만이 형성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형성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면 잘 수행을 닦는 것이다. 잘 수행을 닦는 자들은 가르침과 계율에 발판을 마련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형성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형성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집착없이 해탈하면 잘 해탈한 것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홀로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유전하여 시설될 것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의식이란 어떠한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가지 의식의 무리, 즉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 정신의식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른다. 명색이 생겨남으로써 의식이 생겨나고 명색이 소멸함으로써 의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은 여덟가지 거룩한 길만이 의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의식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면 잘 수행을 닦는 것이다. 잘 수행을 닦는 자들은 가르침과 계율에 발판을 마련한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라도 이와 같이 의식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생성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잘 알고, 의식을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 집착없이 해탈하면 잘 해탈한 것이다. 잘 해탈한 자들은 홀로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유전하여 시설될 것이 없다."

註.

- 네가지 계열 : catuparivattam. 원래는 전변(轉變)이라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네가지 진리(四諦)의 계열을 말한다.

- 물질의 네가지 위대한 존재 : mahabhuta.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四大)를 말한다.

- 잘 해탈한 자들은 '홀로 존재하고' : kevalino. 일반적으로 인도철학에서는 독존자(獨存者)란 의미로 쓰이는데, 붓다고싸에 의하면 '완전한, 모든 해야할 일을 해 마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Khandhakavaggo
1. Khandhasaṃyuttaṃ
2. Majjhimapaṇṇāsako
1. Upay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hassa

1. 2. 1. 4.

Upādāna parivatta suttaṃ

56. Sāvatthiyaṃ -

Pañcime bhikkhave, upādānakkhandhā, katame pañca: seyyathīdaṃ: rūpūpādānakkhandho, [PTS Page 059] [\q 59/] vedanūpādākkhandho, saññūpādānakkhandho, saṃkhārūpādānakkhandho, viññāṇūpādānakkhandho, yāvakīvañcāhaṃ bhikkhave, ime pañcupādānakkhandhe catuparivattaṃ 2- yathābhūtaṃ nābbhaññāsiṃ, neva tāv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nuttaraṃ

---------------

1. So bhikkhu - sīmu 2. Catuparivaṭṭaṃ - machasaṃ.

[BJT Page 104] [\x 104/]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ti paccaññāsiṃ, yato ca khohaṃ bhikkhave, ime pañcupādānakkhandhe catuparivattaṃ 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thāhaṃ bhikkhave, sadevake loke samārake sabrahmake sassamaṇabrāhmaṇīyā pajāya sadevamanussāya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ti paccaññāsiṃ.

Kathaṃ catuparivattaṃ 1-:

Rūpaṃ abbhaññāsiṃ, rūpasamudayaṃ abbhaññāsiṃ, rūpanirodhaṃ abbhaññāsiṃ, rūp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bhaññāsiṃ, vedanaṃ abbhaññāsiṃ, vedanāsamudayaṃ abbhaññāsiṃ, vedanānirodhaṃ abbhaññāsiṃ, vedanā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bhaññāsiṃ. Saññaṃ abbhaññāsiṃ,saññāsamudayaṃ abbhaññāsiṃ, saññānirodhaṃ abbhaññāsiṃ, saññā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bhaññāsiṃ. Saṃkhāre abbhaññāsiṃ, saṅkhārasamudayaṃ abbhaññāsiṃ, saṃkhāranirodhaṃ abbhaññāsiṃ, saṃkhār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bhaññāsiṃ. Viññāṇaṃ abbhaññāsiṃ, viññāṇasamudayaṃ abbhaññāsiṃ, viññāṇanirodhaṃ abbhaññāsiṃ, viññāṇ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bhaññāsiṃ.

Katamañca bhikkhave, rūpaṃ:

Cattaro ca mahābhūtā catunnañca mahābhūtānaṃ upādāya rūp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rūpaṃ. Āhārasamudayā rūpasamudayo, āhāranirodhā rūpanirodho,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rūpanirodhagāminī paṭipadā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ṃkappo sammāvācā sammā kammanto sammāāji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Ye hi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rūpaṃ abhiññāya evaṃ rūpa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rūpaṃ 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rūp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rūpassa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 paṭipannā, te supaṭipannā2, ye supaṭipannā. Te imasmiṃ dhammavinaye gādhanti.

Ye ca kho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rūpaṃ abhiññāya evaṃ rūpa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rūpaṃ 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rūp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rūpassa nibbidā virāgā nirodhā anupādā vimuttā, te suvimuttā, ye suvimuttā te kevalino, ye kevalino, vaṭṭaṃ tesaṃ natthi paññāpanāya.

Katamā ca bhikkhave, vedanā:

Chayime ca bhikkhave, [PTS Page 060] [\q 60/] vedanākāyā: cakkhusamphassajā vedanā, sota samphassajā vedanā, ghānasamphassajā vedanā, jivhāsamphassajā vedanā, kāyasamphassajā vedanā, manosamphassajā vedanā ayaṃ vuccati bhikkhave, vedanā. Phassasamudayā vedanāsamudayo, phassanirodhā vedanānirodho,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vedanānirodhagāmīni paṭipadā,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ṃkappo sammāvācā sammā 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

1. Catuparivaṭṭaṃ - machasaṃ 2. Suppaṭipannā - sīmu, machasaṃ.

[BJT Page 106] [\x 106/]

Ye hi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vedanaṃ abhiññāya evaṃ vedanā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vedanā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vedanā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vedanāya nibbidāya virāgāya nirodhāya paṭipannā, te supaṭipannā. Ye supaṭipannā, te imasmiṃ dhammavinaye gādhanti.

Ye ca kho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vedanaṃ abhiññāya evaṃ vedanā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vedanā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vedanā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vedanāya nibbidā virāgā nirodhā anupādā vimuttā, te suvimuttā, ye suvimuttā, te kevalino, ye kevalino, vaṭṭaṃ tesaṃ natthi paññāpanāya.

Katamā ca bhikkhave, saññā:

Chayime bhikkhave, saññākāyā: rūpasaññā saddasaññā gandhasaññā rasasaññā phoṭṭhabbasaññā dhammasaññā, ayaṃ vuccati bhikkhave, saññā. Phassasamudayā saññāsamudayo, phassanirodhā saññānirodho,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aññānirodhagāminīpaṭipadā: seyyathi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ṃ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i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Ye hi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saññaṃ abhiññāya evaṃ saññā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saññā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saññā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saññāya nibbidā virāgā nirodhā anupādā vimuttā, te suvimuttā, ye suvimuttā, te kevalino, ye kevalino, vaṭṭaṃ tesaṃ natthi paññāpanāya.

Katame ca bhikkhave, saṃkhārā:

Chayime bhikkhave, cetanākāyā: rūpasañcetanā saddasañcetanā gandhasañcetanā rasasañcetanā phoṭṭhabbasañcetanā dhammasañcetanā, ime vuccanti bhikkhave, saṃkhārā. Phassasamudayā saṃkhārasamudayo, phassanirodhā saṃkhāranirodho,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saṃkhāranirodhagāminī paṭipadā: seyyathīdaṃ:sammādiṭṭhi sammāsaṃ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Ye hi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saṃkhāre abhiññāya evaṃ saṃkhārā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saṃkhāra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saṃkhār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saṃkhārāya nibbidā virāgā nirodhā anupādā vimuttā, te suvimuttā, ye suvimuttā, te kevalino, ye kevalino, vaṭṭaṃ tesaṃ natthi paññāpanāya.

Katamā ca bhikkhave, viññāṇaṃ:

Chayime bhikkhave, viññāṇakāyā: cakkhuviññāṇaṃ sotaviññāṇaṃ, ghānaviññāṇaṃ jivhāviññāṇaṃ, kāyaviññāṇaṃ, manoviññāṇ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viññāṇaṃ. Nāmarūpasamudayā viññāṇasamudayo, nāmarūp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ayameva ariyo aṭṭhaṅgiko maggo viññāṇanirodhagāminī paṭipadā: seyyathīdaṃ: sammādiṭṭhi sammāsaṃ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sammāsamādhi.

Ye hi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viññāṇaṃ abhiññāya evaṃ viññāṇa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viññāṇa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viññāṇ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viññāṇassa nibbidā [PTS Page 061] [\q 61/] virāgāya nirodhāya paṭipannā, te supaṭipannā, ye supaṭipannā, te imasmiṃ dhammavinaye gādhanti.

[BJT Page 108] [\x 108/]

Ye ca kho keci bhikkhave, samaṇā vā brāhmaṇā vā evaṃ viññāṇaṃ abhiññāya evaṃ viññāṇasamudayaṃ abhiññāya evaṃ viññāṇanirodhaṃ abhiññāya evaṃ viññāṇanirodhagāminiṃ paṭipadaṃ abhiññāya viññāṇassa nibbidā virāgā nirodhā anupādā vimuttā, te suvimuttā ye suvimuttā te kevalino, ye kevalino, vaṭṭaṃ tesaṃ natthi paññāpanāyāti.

Sutta Pitaka
Saṃyutta Nikāya
Division III - Khandhaka
Book 21 - Khandha Saṃyutta
Section 2 - The Middle Fifty
Chapter 1 - Upaya (Paṭhamo) Vagg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21. 2. 1. 4.

(56) Upādānaṃ parivaṭṭaṃ - Holding and Turning in a Circle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2. From there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monks:

3. “Monks, these five are the holding masses. What five? The holding masses of matter,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the holding mass of consciousness.

4. “Monks, until I thoroughly knew the five holding masses in these four ways, I did not acknowledge my incomparable rightful realization to the world together with its gods and men, Maras, Brahmas and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gods, and men.

5. “Monks, when I thoroughly knew the five holding masses in these four ways, I acknowledged my incomparable rightful realization to the world together with its gods and men, Maras, Brahmas and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gods, and men.

6. “What are the four ways? They are the thorough realization of matter, its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its cessation. The thorough realization of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and consciousness, their arisings, cessations, and the method for their cessations.

7. “Monks, what is matter? The four primary elements and the matter held as mine, is called matter. Arising of supports is the arising of matter [[1](http://awake.kiev.ua/dhamma/tipitaka/2Sutta-Pitaka/3Samyutta-Nikaya/Samyutta3/21-Khandha-Samyutta/02-01-Upayavaggo-e.html#Note1)] and the cessation of supports is cessation of matter. This same Noble Eightfold Path is the method for the cessation of matter, such as Right View ... re ... Right Concentration.

8.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thoroughly realize matter, its arising, its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its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matter and they have fallen to the rightful method for measuring the depth of this dispensation.

9.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have thoroughly realized matter, its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its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matter. They are the released, well released, perfect ones who cannot be shown in existences.

10. “Monks, what are feelings? These six are the bodies of feeling. Such as feelings born of, eye contact, ear contact, nose contact, tongue contact, body contact and mind contact. Monks these are called feelings. From contacts arise feelings and the cessation of contacts is the cessation of feelings. This same Noble Eightfold Path is the method for the cessation of feelings such as Right View ... re ... Right Concentration.

11.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thoroughly realize feelings, their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their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feelings. They have fallen to the rightful method of measuring the depth of this dispensation.

12.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have thoroughly realized feelings, their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their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feelings. They are the released, well released, perfect ones who cannot be shown in existences.

13. “Monks, what are perceptions? These six are the bodies of perception. They are perception of forms, sounds, smells, tastes, touches and ideas. Monks these are called perceptions. From contact arise perceptions and the cessation of contact is the cessation of perceptions. This same Noble Eightfold Path is the method for the cessation of perceptions such as Right View ... re ... Right Concentration.

14.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thoroughly realize perceptions, their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their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perceptions and they have fallen to the rightful method of measuring the depth of this dispensation.

15.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have thoroughly realized perceptions, their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their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perceptions. They are the released, well released, perfect ones who cannot be shown in existences.

16. “Monks, what are intentions? These six are the bodies of intention. They are intentions for forms, sounds, scents, tastes, touches and ideas. Monks these are called intentions. From contacts arise intentions and the cessation of contacts is the cessation of intentions. This same Noble Eightfold Path is the method for the cessation of intentions such as Right View, .. re ... Right Concentration

17.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thoroughly realize intentions, their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their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intentions and they have fallen to the rightful method of measuring the depth of this dispensation.

18.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have thoroughly realized intentions, their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the cessation of intentions,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intentions. They are the released, well released, perfect ones who cannot be shown in existences.

19. “Monks, what is consciousness? These six are the bodies of consciousness. They are consciousness of the eye, ear, nose, tongue, of the body and consciousness of the mind. Monks to this is called consciousness. Arising of name and matter is the arising of consciousness and the cessation of name and matter is the cessation of consciousness. This same Noble Eightfold Path is the method for the cessation of consciousness such as Right View, .. re ... Right Concentration

20.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thoroughly realize consciousness, its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its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consciousness and they have fallen to the rightful method. of measuring the depth of this dispensation.

21. “Monks, the recluses and brahmins who in this manner have thoroughly realized consciousness, its arising, cessation and the method for its cessation have fallen to the method of turning away, loosing interest and ceasing consciousness. They are the released, well released perfect ones who cannot be shown in existences.”

註.

- 괴로움 : dukkha. 이는 sukha의 상대가 되는 말로 kha는 수레바퀴나 태양의 빛살을 의미한다. 따라서 dukkha는 나쁜 수레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sukha는 좋은 수레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거나 태양의 빛과 같은 진리의 빛이 잘 퍼져나가지 못하거나 잘 퍼져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